READ+

코로나 19로 언택트 문화가 퍼짐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키가 작은 아이들은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며 디지털 소외현상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한때 쓰이고 버려지는 서적 낭비의 문제가 포착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를 위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중고서점을 계획하였다.

Concept

READ+ [리드플러스]

도서 뿐만 아니라 + 요소를 얻을 수 있도록

눈높이 — **치유** — **Enjoy**

아이들의 눈높이 맞춘
또한 비장애 아동들이 장애인의
눈높이를 이해하도록

스누젤렌 실을 통해
책을 읽으면서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구성과
다양한 활동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케어존
카운터 & 인포메이션
육아실
휠체어 파킹존

키오스크존
스누젤렌 키오스크존
테이블 키오스크
높낮이 키오스크 & 무인 구매대

감각체험존
오디오북 & 스누젤렌

리딩존
라이다운 리딩존
웨이브 리딩존
리딩 에릭룸

이벤트존
디지털 포토존
굿즈존
메모리 포토존

Solution

카운터 & 인포메이션

아이들에 눈높이에 맞춰 위 아래로 움직이는 키오스크가 존재하는 장소로 이곳에선 책을 구매 할 수 있다.무인서비스 뿐만아니라 키가 작은 어린아이나 휠체어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판매 테이블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직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디지털 포토존

많은 아이가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는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곳은 그 꿈을 실현해줄 수 있는 공간인 디지털 포토존을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동화 속 인물들과 사진을 찍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메모리 포토존

디지털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추억을 남기고 이를 통해 즐거움을 배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높낮이 키오스크 & 무인 구매대

키오스크에 내장 된 카메라로 사용자의 신장을 스캔하여 스스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하로 움직인다.
무인 구매대에서는 무거운 책들을 올려놓을 수 있으며, 바코드에 올려놓아 구매 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테이블 키오스크

도서 검색을 할 수 있는 테이블형 키오스크로 테이블과 분리된 자유로운 형태의 모듈형 소파로 구성되어있어 휠체어 사용자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불결을 모티브 한 책장과 의자를 사용하여 불규칙한 형태로 유동적인 움직임을 연상시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휠체어 파킹존

휠체어 보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점 이용자는 휠체어 필요도에 따라 이 공간을 사용한다.

스누젤렌 키오스크존

스누젤렌에서 들려주는 오디오북을 설정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다. 음량, 내용 진행도 등을 관리 및 확인 할 수 있다.

라이다운 리딩존

큰 창이 둘러 있어 마스킨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펫이 깔려있어 바닥에 눕거나 엎드려 독서를 즐길 수 있다.문턱 등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들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스누젤렌

빛, 소리, 촉각 등의 감각자극을 이용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 '스누젤렌 실'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서도, 시간대별로 오디오북을 틀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시각 뿐만 아니라 청각으로도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다

웨이브 리딩존

모퉁존을 크게 감싼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터널은 책장과 편하게 기대 누워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의 물결모양으로 이어져있는 내부와 벽 단차에 배치되어 있는 마늘한 소파 공간인 외부로 이루어져 있다.

리딩 에릭룸

아치형의 형태로 구성된 복도식의 독서공간으로,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독서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휠체어가 이 복도를 지나갈 경우 아치형 공간에 들어가 부딪힘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